승부사 기질 어디로 갔나… "이젠 4점도 불안하다"

올 시즌 득점 데이터로 분석한 KIA 승리 공식

4득점 이하 2할 승률, 리그 평균 못미쳐 '뒷심 부족' 노출
부상 악재 속 한 점 싸움 풀어낼 전술·불펜 운영 과제로

지난 11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마무리 투수 정해영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득점 규모에 따라 경기 흐름이 좌우되는 모습이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을 관통하고 있다.

5점 이상 득점할 경우에는 승리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5점을 넘기지 못하면 이기기 어려운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 마치 '5점'이라는 숫자가 승패의 마지노선처럼 작용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삼성전 승리도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줬다.

1-2로 끌려가던 6회말, KIA는 볼넷과 상대 실책, 연속 안타를 효과적으로 엮어 단숨에 4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뒤집었다. 8회에도 추가점을 보태 승부에 쐐기를 박았고, 결국 6-3으로 승리했다. 시즌 성적은 32승 31패 1무. 리그 7위를 유지했다.

득점이 뒷받침될 때 KIA가 얼마나 강한 팀으로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다.

실제로 이날까지 총 64경기를 치른 KIA는 5득점 이상을 기록한 29경기 중 25승(승률 0.862)을 거두며, 타선이 터지는 날엔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반면, 5점 미만 득점한 35경기에서는 승률 0.200(7승1무27패)에 그쳤다. 이는 리그 평균(0.254)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10개 구단 중 7위에 해당한다. 5점 미만 경기 수는 6번째로 많다.

흥미로운 점은, KIA보다 타선이 더 자주 침묵한 팀들이 있음에도 이들보다 승률이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키움(47경기), kt(43경기), 두산(42경기), SSG(40경기)는 모두 5점 미만 득점 경기 수가 KIA보다 더 많다.

하지만 SSG는 이 구간에서 12승을 거두며 0.300의 승률을 기록했고, kt 역시 13승을 올리며 승부처 집중력을 보여줬다.

상위 1-3위 팀인 LG, 한화, 롯데도 마찬가지다.

LG는 5점 미만의 32경기에서 11승(승률 0.344), 롯데는 같은 32경기에서 9승(승률 0.281), 한화는 무려 38경기에서 15승(승률 0.395)을 기록했다.

KIA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저득점 경기를 치르고도 이들 팀은 훨씬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KIA는 적은 득점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고, 승부를 잡아내는 힘이 부족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핵심 타자들의 잇단 부상 이탈이 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 타자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무게감은 물론, 득점 루트마저 단조로워졌다.

특히 김도영의 기동력 부재는 공격 전개에 큰 제약을 줬다.

이로 인해 저득점 경기에서도 흐름을 바꾸거나 한 점 싸움을 끝까지 가져가는 힘마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복귀하면 득점력과 파괴력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득점이 많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체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화력이 터졌을 때만 승리를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전 운용, 불펜 집중력, 수비 안정성 등 한 점 싸움을 버틸 수 있는 운영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백업 선수들이 분투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금, 진짜 시험대는 핵심 자원들이 돌아온 이후다.

팬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흐름이 막혀도 이길 수 있는 '버티는 힘'이다.

KIA가 그 해답에 다가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주홍철 기자

KIA, "19일 kt戰은 람사르 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람사르 데이'는 KIA 구단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이하 람사르 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201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람사르 데이는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단과 환경분야 국제기구가 함께 펼치는 환경 캠페인으로, 팬들에게 환경 보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경기 시구와 시타는 강진 옴천초 6학년 정세영 학생과 경남 창녕군 남지초 6학년 정아영 학생이 맡는다. 옴천초와 남지초는 각각 강진만과 우포늪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습지학교이다.

선수단은 람사르 협약의 상징색인 청녹색과 습지를 상징하는 갈색을 활용한 람사르 데이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람사르 센터는 이날 관람객들에게 람사르 데이 기념 사인볼과 배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의 습지 인식 증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습지학교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 중에는 습지 보전 퀴즈 이닝 이벤트와 SNS 퀴즈 이벤트를 통해 람사르 기념 유니폼과 사인볼을 증정한다. /주홍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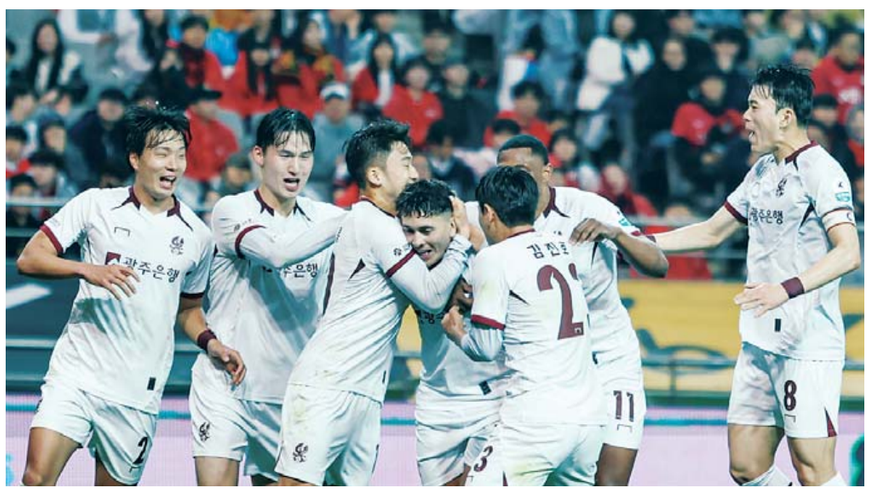
키움서 MLB 꿈꾸던 친구 이정후·김혜성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혜성(왼쪽)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AFP=연합뉴스

'킬러 본능' 장착…서울戰 6연승 정조준

광주FC, 오늘 홈 맞대결

보약같은 휴식, 경기력 재충전
6월 4경기 우승권 진입 가늠자
'그린 스타디움상' 시상식 도 열려



광주FC 헤이스가 지난 4월19일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달콤한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8라운드 서울과 홈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올 시즌 국내 어떤 구단보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4-5월 광주는 리그, ACLE, 코리아컵을 병행하며 두 달간 13경기를 치르는 지옥의 레이스를 펼쳤다.

선수단 역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찰나에 꿀맛 같은 A매치 휴식기가 찾아왔다. 광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이 기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완료했다.

광주는 현재 리그 17경기에서 6승 6무 5패(승점 24),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구단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몇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순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분주히 승점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6월 남은 일정은 광주 팬들을 기대케 하기 충분하다. 광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은 대전과의 경기가 유일하다.

만일 광주가 6월 4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즌 반환점을 돌기 전 우승권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긴 휴식 후 첫 단추를 끼워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 선수단도 승점 3점을 향한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재개된 후 치르는 첫 경기가 서울전이라는 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는 최근 FC서울을 상대로 유독 강했다. 2023년 9월17일 30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올시즌에도 광주는 지난 9라운드에서 서울을 2-1로 제압, 서울전 5연승 달성에 성공하며 '서울 킬러' 면모를 이어갔다.

모처럼 긴 휴식을 취한 광주가 서울을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광주는 이번 홈경기를 앞두고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한 클럽에게 주어지는 '그린 스타디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빅리그 무대서 첫 맞대결

14-16일, SF와 다저스 첫 3연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을 펼치는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14-16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지구 라이벌의 시즌 첫 3연전 테마 중 하나는 코리안 빅리거 맞대결이다.

1999년 1월에 태어난 김혜성과 1998년 8월생인 이정후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다.

2017년 이정후가 1차, 김혜성이 2차 1라운드에서 키움에 지명되면서 둘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이정후는 데뷔한 2017년 신인왕에 오르고, 2022년에는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정후는 2024년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천3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로 직행했다.

이정후만큼은 아니지만, 김혜성도 4시즌 연속 골든글러브(2021-2024년)를 수상했고 '국가대표 내야수'의 입지를 굳혀 올해 다저스와 3년 1천250만달러, 3+2년 최대 2천200만달러에 계약했다.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은 김혜성은 5월4일 빅리그에 입성했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총 13차례 대결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유니폼, 한국 팬이 7천600만원에 낙찰

손흥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UEL) 결승전 유니폼이 거액에 한국 팬에게 팔렸다.

12일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에 따르면 손흥민의 UEL 유니폼은 유니폼 경매 사이트 매치원셔츠에서 4만8천907유로(약 7천600만원)에 낙찰됐다.

등번호 7이 새겨진 자리에 손흥민이 직접 사인한 토트넘의 하얀색 홈 경기용 유니폼이다.

매치원셔츠는 "경기를 위해 준비됐으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퍼스웹은 낙찰받은 팬이 한국인이며 낙찰가는 매치원셔츠에서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앞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마이애미)의 유니폼이 이번 손흥민 유니폼보다 높은 4만9천400파운드(9천100만원)와 4만4천500파운드에 각각 낙찰됐다. /연합뉴스